

코쓰모쓰

清楚한 코쓰모쓰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넋 少女가 묻건디게 그리워

코쓰모쓰 편 庭園으로 찾아간다。

코쓰모쓰는

귀뚜리 울음에도 수집어지고、

코쓰모쓰 앞에선 나는

어렸을적 처럼 부끄러워 지나니、

내마음은 코쓰모쓰의 마음이요、

코쓰모쓰의 마음은 내마음이다。

一九三八、九、二十日、

코스모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건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편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리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1938. 9. 20.